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1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h1>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손진욱 (전화 02-2204-4201)</p>	2024. 8. 20.(화)
		<p>주책임자: 합동수사단장 자료문의: 합동수사단 (전화 02-2204-4963)</p>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역대 최대 규모 가상계좌 유통조직 적발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홍완희)은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가상계좌 유통조직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역대 최대 규모인 가상계좌 72,500개를 판매한 총책 등 4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 기소하였음
- ※ 합수단은 '22. 7. 29.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등 총 645명 입건, 214명 구속
- 합수단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가상계좌가 사용된 사실에 주목,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원팀’ 수사로 가상계좌 유통조직이 보이스피싱 및 불법도박 운영조직에 가상계좌를 판매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및 도박자금 5,900억원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약 11억 2,060만원 상당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이에 피고인들을 구속 기소하면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조치하였고, 가상계좌를 매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 중임
 -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수취의 새로운 수단인 가상계좌의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상계좌 유통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을 금융당국과 공유할 계획임
 - 합수단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과 함께 제도 개선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가. 공소사실 요지

- 총책 A, 유통 및 관리책 B(신양관광파 조직원), 유통책 C는 공모하여,
 - '22. 8. ~ '23. 6. 가상계좌 유통을 목적으로 유령법인 ○○을 설립한 후, 결제대행사 △△페이먼츠가 보유한 □□저축은행 가상계좌에 대한 관리 권한을 취득하여 보이스포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상계좌 72,500개를 제공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가상계좌를 보이스포싱 조직에 제공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보이스포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포싱 조직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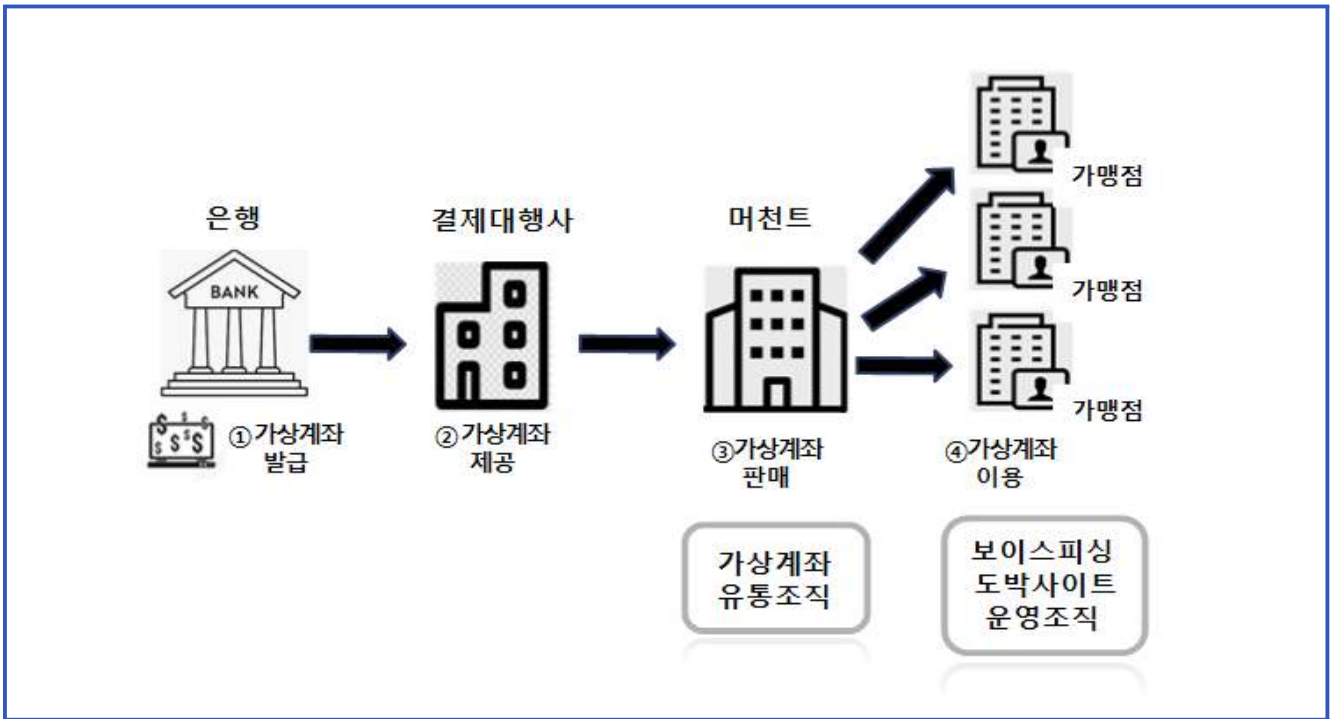
나. 수사 경과

- '24. 3. ~ 6.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가상계좌 압수·분석 진행
- '24. 6. 5. B 구속 기소
- '24. 7. 11. A 구속 기소
- '24. 8. 19. C 구속 기소

다. 수사 결과 확인된 범행구조

- 가상계좌 영업구조 및 범죄 이용 실태
 - 가상계좌는 결제대행사(PG사)가 보유한 모(母)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계좌로, PG사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가상계좌 판매업자(‘머천트’)에게 제공하고, 머천트는 PG사로부터 가상계좌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가상계좌를 제공함
 - 이후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가맹점이 출금을 신청하면 ▲머천트의 승인을 거쳐 ▲당초 가맹점이 지정해둔 계좌로 이체되는 구조임
- ※ PG사는 하나의 모계좌에서 발급된 가상계좌를 다수의 머천트에게 제공하고 있어, 해당 모계좌는 여러 명의 머천트가 함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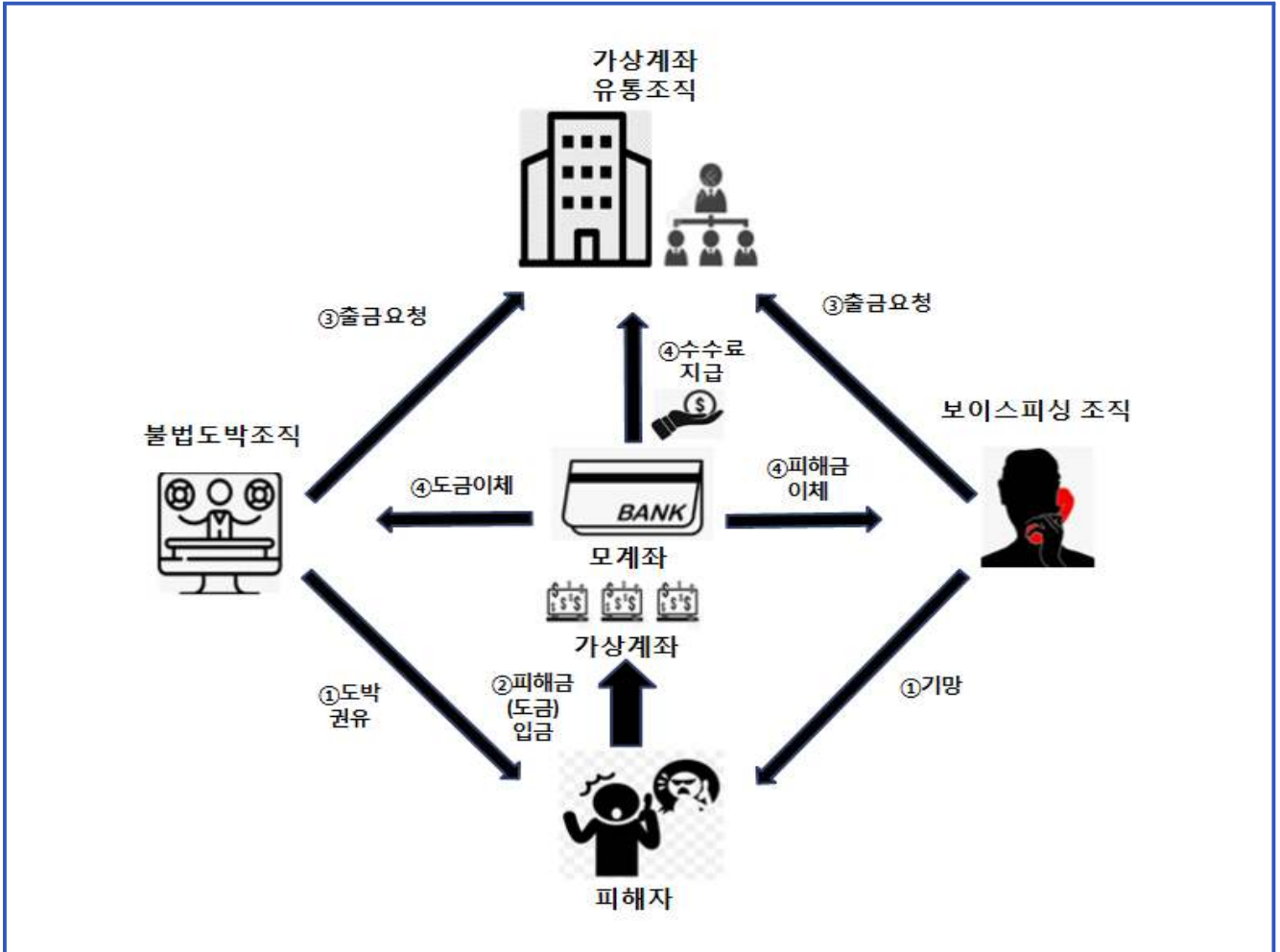
- 가상계좌 유통조직은 위와 같은 가상계좌 영업구조에서 '머천트'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한 후 가상계좌를 이용해 범죄조직의 불법자금을 관리해주고 있음



○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을 설립한 후, PG사인 △△페이먼츠와 가상계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도박자금 등을 범죄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
- 피고인들은 「가상계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관리하였으며,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보이스피싱 조직 대신 피해자와 접촉하여 사건을 무마시키고 계좌 지급정지를 회피하기까지 하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과 공생하였음
- 피고인들이 유통한 가상계좌는 총 72,500개로 현재까지 적발된 가상계좌 유통조직 중 최대이고, 위 가상계좌를 통해 5,900억원대 불법자금을 관리해주고 약 11억 2,0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피고인들이 세탁한 자금에는 피해자 6명으로부터 편취한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포함되어 있음

- 이 사건 범행은 가상계좌 판매업을 하던 피고인 A가 가상계좌 유통을 위한 유령법인 설립 및 PG사와의 계약체결 등 범행 기반 조성을 담당하고, 대포통장 유통업을 하던 조직폭력배 출신 피고인 B 등이 가상계좌 유통망 마련을 담당하는 등 역할 분담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



II

수사의 의의

가상계좌가 범죄에 대규모로 이용되는 실상을 확인

- 가상계좌는 일반적인 통장과 달리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무한대로 개설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모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범죄조직의 가상계좌 이용이 급증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및 도박자금 등 불법자금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차이점	일반계좌	가상계좌
실명 확인 의무	있음	없음
개설 가능한 계좌 수	제한 있음	제한 없음
지급정지 효력	계좌 자체의 모든 출금 정지	신고된 금액의 출금만 정지
피해금이 이체된 연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효력	피해금이 이체된 모든 연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효력 있음	연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효력 없음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유기적인 '원팀' 수사

- 이 사건은 합수단의 금융수사협력팀(금융감독원 직원 등 파견근무 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사실공고* 중 가상계좌 현황을 분류·분석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가상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계좌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피해내역 확인, 가담자 검거를 진행하여 대규모 가상계좌 유통조직을 일망타진한 사안임

* (채권소멸 사실공고)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에 따른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해당 계좌의 예금 채권이 소멸됨을 공지하는 제도

- 합수단의 범정부·유관기관 '원팀' 협력 취지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자료분석 ▲검찰의 직접수사 ▲경찰의 검거지원 등으로 유기적 협업 하에 수사를 진행하였음

가상계좌의 유통실태 및 관리상 문제점 확인

- 일반적인 계좌 개설 시 거래자의 실명확인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가상계좌 제공을 위한 PG사와 머천트의 금융계약은 계약 상대방에 대한 확인 의무가 강제되지 않고, 더 나아가 머천트의 가맹점 모집은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또한, 이 사건 PG사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접수된 머천트들에 대하여 계약해지, 가상계좌 이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이에 합수단은 이 사건 가상계좌에 대한 판매 권한이 있는 △△페이먼트에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대표이사 등이 기소된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해지 및 가상계좌 이용 중지 등 후속조치에 대한 협조요청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판매한 가상계좌가 추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였음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범죄유인 차단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상계좌를 통해 약 5,900억원의 불법자금을 이체해 줌으로써 약 11억 2,0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들의 현금 및 관련 계좌 등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하였음

III 향후 계획

- 이 사건 가상계좌를 매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하여는 합수단에서 계속 수사 진행 중임
- 아울러 합수단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상계좌 불법유통의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 다수의 지급 정지 이력이 있는 머천트에 대한 점검 필요성 등을 금융당국과 공유할 계획임
- 앞으로도 합수단은 범정부·유관기관 역량을 총결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